

전북지역에서 콩의 논 및 밭 재배에 따른 생육과 수량

최규환^{1*}, 최영민¹, 허병수¹, 권석주¹, 이승엽²

¹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1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²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서론]

전라북도에서 콩의 재배면적은 6,027ha로 전국(74,562ha) 대비 8.1% 수준이며, 우리나라에서 논에서의 콩 재배면적은 10,785ha로 전국의 14.5% 수준이다. 최근에는 논에서의 밭작물재배를 권장하고 있어 그 재배면적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에서 콩의 수량을 확보하고, 용도별로 다수성 품종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의 시험한 품종은 장류콩으로 대원콩 등 9품종, 단기성콩으로 새올콩 등 4품종, 나물용으로 풍산나물콩 등 6품종, 유색콩으로 청자3호 등 5품종이었다. 생육과 수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에 소재하는 논과 밭포장 2개소에서 시험이 수행되었다. 파종시기는 2017년 7월 3일이었고, 파종간격은 60×20cm이었으며, 주당 2개체로 조절하였다. 시비량은 10a당 N-P₂O₅-K₂O를 3-3-3.4kg이었다. 주요조사항목은 품종별 개화기, 성숙기, 경장, 수량구성요소 등이었다.

[결과 및 고찰]

시험기간 중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편이었고, 강수량은 대체로 적은 상태로 경과되었다. 논재배가 밭재배 대비 개화기가 늦었던 품종은 대원콩, 태광콩, 대풍2호, 풍원콩, 소연콩, 신화콩, 해원콩, 참울콩, 황금울콩, 소청자 등이었고, 빨랐던 품종은 대찬콩, 태선콩, 새금콩, 풍산나물콩, 해품콩, 청자4호, 청미인, 미소콩 등이었다. 재배조건에 따라 성숙기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성숙기는 대원콩, 태광콩, 대풍2호, 대찬콩, 태선콩, 선풍콩 등 대부분의 품종이 밭보다 논에서 늦어지는 경향이였다. 주당협수는 논보다 밭에서 많은 경향이였고, 협당립수는 논과 밭 모두 비슷한 경향이였다. 또한 백립중은 밭보다 논재배에서 높은 경향이였다. 수량은 논에서 장류콩, 유색콩이 많은 편이였고, 나물콩과 단기성콩은 밭에서 높은 편이였다.

[사사]

본 연구는 지방농촌진흥사업 (과제번호 : LP0027142018)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주저자: Tel. 063-290-6032, E-mail. ckhann@korea.kr